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장 휘 숙¹⁾

최 영 임²⁾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생(324명)과 노인(328명)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 변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의해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죽음불안을 죽음공포의 8번째 하위차원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대학생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70와 80대는 대학생과 60대보다 신체 기증에 대해 더 큰 공포를 나타내었으며, 대학생들은 노인들보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그리고 시체에 대한 공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시체에 대한 공포와 죽음불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대학생들이 노인들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지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인들은 대학생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죽음공포는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써, 생활만족은 죽음공포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죽음공포, 죽음불안, 생활만족, 노인

1) 교신저자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hsjang@cnu.ac.kr)

2)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죽음은 인생의 최종적 사건으로 성인후기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죽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 정도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불행하게도 죽음은 삶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고, 자기(self)의 계속적인 존재는 물론 의미 있는 삶 자체를 위협한다. 각 개인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가피한 분리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Feifel & Nagy, 1981; Fry, 1990; Wass, Berardo, & Neimeyer, 1988). 그러나 Erikson(1963, 1982)은 자신의 인생을 잘 못 살았다거나 낭비했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죽음공포를 보이는 반면, 자아통합을 이룬 개인들은 더 적은 죽음공포를 보인다고 주장하여 모든 개인들이 동일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자아통합이란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 조화를 이룬 마음상태로서, 자아통합을 이룬 개인들은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개인들은 절망상태에서 죽음공포를 경험하기 쉽다(Wong, Reker & Gesser, 1994).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죽음공포는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언어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죽음불안은 보다 더 일반화되고 자각되지 않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의된다(Wong 등, 1994). 다시 말하면 죽음공포는 사람이 죽음을 예상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공포로서(Tomer, 1994), 중다차원적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된다(Neimeyer & Van Brunt, 1995). 그 예로서 8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공포를 연구한 Johanson과 Barer(1997) 그리고 Tobin(1991, 1996)은 질적 면접을 통하여 노인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를 거의 갖지 않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큰 공포를 나타낸다고 보고함으로써 죽음공포가 하나 이상의 차원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다차원적 죽음공포 척도(The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Hoelter, 1979, Neimeyer & Moore, 1994)를 제작한 Hoelter(1979)와 그것을 개정한 Neimeyer와 Moore(1994)는 죽음공포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소멸되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죽는 것에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처리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데 대한 공포 등 8개의 차원으로 가정한다. 물론 죽음공포가 얼마나 많은 차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죽음불안은 죽음공포와는 달리 단일차원으로 가정되고 자주 Templer(1970)의 죽음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된다. 일반적으로 강한 죽음불안을 갖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수반되는 고통

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지나치게 짧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Neimeyer, 1994; Kastenbaum, 1998; Lonetto & Templer, 1986).

그러나 죽음공포나 죽음불안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두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서 Depaola와 Griffin, Younga 및 Neimeyer(2003)나 Benton과 Christopher 및 Walter(2007) 모두 노인들의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 죽음공포척도(MFODS)를 사용하여 연구하였고 Russac과 Garliff, Reece 및 Spottswood(2007)도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Collett-Lester 죽음공포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 특히 죽음불안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통합분석을 실시한 Fortner, Neimeyer 및 Rybarczyk(2000)은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많은 연구자들이 죽음과 관련된 불안, 공포, 위협, 걱정 등에 대한 조작적 측정치로 죽음불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죽음공포나 죽음불안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두 개념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을 구분하여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젊은 성인들보다 더 적은 죽음공포와 더 적은 죽음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나 구체적 양상에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증거로서 Wong 등(1994)은 노인들이 성인 초기의 성인들보다 죽음을 더 적게 두려워하나 성인 중기의 성인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Cicirelli(2006)는 60-74세 연령의 노인들이

75-84세 노인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나타내어 죽음공포는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esser, Wong 및 Reker(1987-1988)는 노인이 중년의 성인들보다는 죽음에 대해 더 적은 공포를 나타내지만 젊은 성인들보다 더 적은 공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죽음불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불안을 나타내고, 남녀 모두 20대에 가장 큰 죽음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지만(Neimeyer, 1988, Kastenbaum, 2000), 죽음불안에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Conte, Weiner, & Plutchik, 1982; Viney, 1984)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죽음불안을 지닌다는 연구도 있다(Robinson & Wood, 1984). 그러나 최근 죽음불안을 연구한 Russac 등(2007)은 남녀 모두 모두 20대에 가장 큰 죽음불안을 경험하고 연령증가와 함께 죽음불안은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여성들은 50대 초반에 죽음불안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여 죽음불안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태도를 연구한 김지현과 민경환(2005)은 남성들이 더 큰 죽음회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죽음공포나 죽음불안에서 성차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61세부터 87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을 연구한 49편의 연구들을 통합분석한 Fortner와 Neimeyer(1999)는 연령이나 성별이 노인들의 죽음공포나 죽음불안을 예언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실제로 연령이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죽음공포나 죽음불안을 포함하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생활만족과 높은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죽음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한 Neimeyer, Wittkowski 그리고 Moser (2004)는 개인이 죽음을 수용할수록 더 큰 인생만족을 경험한다고 밝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활만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Wong 등(1994)의 연구에서도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느끼는 개인들은 죽음공포와 죽음회피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높은 죽음공포나 높은 죽음불안을 갖는 사람들은 낮은 생활만족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성인후기에 죽음불안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한 국내 연구도 있으므로(전영기, 2000)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성인후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실제로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까지의 남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인후기 노인들과의 비교대상으로 대학생을 포함하였고, 노인들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로 구분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4개의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비교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C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충청북도의 Y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자기보고 양식의 질문지에 응답을 누락한 대학생들과 면접 중에 응답을 거부한 노인들 및 면접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대학생 324명(남: 171명, 여: 153명)과 노인 328명(60대: 남 53명, 여 70명, 70대: 남 78명, 여 80명, 80대: 남 16명, 여 31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대학생 22.10(SD=2.410)세, 여자 대학생 20.04(SD=1.404)세, 60대 남성 65.57 (SD=2.685)세, 60대 여성 65.27(SD=2.697)세, 70대 남성 73.88(SD=1.338)세, 70대 여성 73.94 (SD=2.547)세, 80대 남성 83.44(SD=2.920)세, 80대 여성 83.23(SD=2.963)세였다.

2. 절차

대학생 자료는 심리학 개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집단으로 실시되었고, 노인들의 자료는 미리 제작된 질문지에 면접자가 기록하는 형식으로 일대일의 면접에 의해 수집되었다.

노인면접은 사전에 훈련받은 5명의 발달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복지관과 노인회관, 스포츠 센터 및 노인들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세가지 척도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87-.97로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집된 남성의 87%와 여성의 44%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97% 이상의 남성과 여성들이 한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 노인들의 40%와 여

성노인들의 17%가 포도 농사일을 하거나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생활수준은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 월평균 수입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범위하였다. 8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는 면접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면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중도 탈락자들이 많았다. 면접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에게 작은 선물이 제공되었다.

질문지를 완성하기 위해 대학생은 약 15분, 노인들은 약 30분이 소요되었고 자료는 2007년 5월 첫 주부터 6월 초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3. 측정도구

죽음공포척도

죽음공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홍표, 이홍석, 고효진, 김교현(2005)이 타당화한 죽음공포척도가 사용되었다. 7개 차원의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Hoelter(1979)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죽음공포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로서, MFODS의 8개 차원 중 하나의 차원(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에 대한 공포)을 제외하고, “소멸되는 것에 대한 공포” 차원을 “신체기증에 대한 거부감” 차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홍표 등(2005)의 척도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7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요인의 명칭을 보다 구체화하여 7개 차원의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죽어가

는 과정에 대한 공포’(6문항, 문항 예: 죽을 때 심한 고통을 겪을까봐 두렵다),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2문항, 문항 예: 죽으면 내 몸을 과학연구를 위해 기증하고 싶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4문항, 문항 예: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한참동안 고통스러울 것이다),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3문항, 문항 예: 사후세계가 없을까봐 두렵다),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3문항, 문항 예: 죽기 전에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2문항, 문항 예: 죽은 후 내 육체가 썩는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 그리고 ‘시체에 대한 공포’(2문항, 문항 예: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등이 그것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죽음공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노인들의 경우,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alpha=.876$,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alpha=.893$,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alpha=.789$,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alpha=.795$,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alpha=.850$,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alpha=.832$, 그리고 시체에 대한 공포 $\alpha=.736$ 이었으며, 각 차원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alpha=.905$, $\alpha=.873$, $\alpha=.789$, $\alpha=.820$, $\alpha=.819$, $\alpha=.885$, 그리고 $\alpha=.717$ 이었다.

죽음불안척도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휘숙(2000)이

번안한 Templer(1970)의 죽음불안척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의 진위형 척도로서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 한다’,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 등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1점)’, ‘아니다(0점)’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형식의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되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큰 죽음 불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노인들의 경우 Cronbach $\alpha = .735$ 였고, 대학생들은 $\alpha = .719$ 로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생활만족척도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하여도 나는 지금과 같이 살 것이다’ 등의 5개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노인의 경우 $\alpha = .842$, 그

리고 대학생들의 경우 $\alpha = .814$ 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의 관계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개념을 구분한 2요인 모형과 두 개념을 통합한 1요인 모형을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죽음공포의 7개 하위차원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원에서는 각 차원의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죽음불안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4개의 문항이 측정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였고, 최대우도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이 .90이상이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모형으로 평가되므로 표 1에서 2요인 모형보다 1요인 모형이 더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보다는 하나의

표 1.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의 관계에 대한 2요인 모형과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2요인 모형	506.459	43	.655	.731	.136
1요인 모형	941.568	201	.918	.930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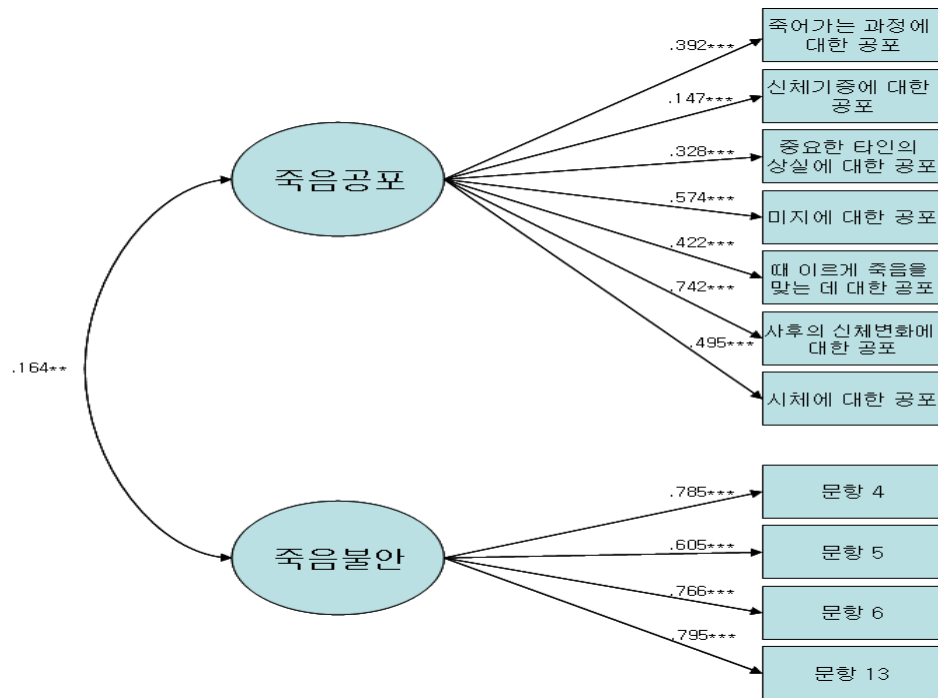


그림 1. 2요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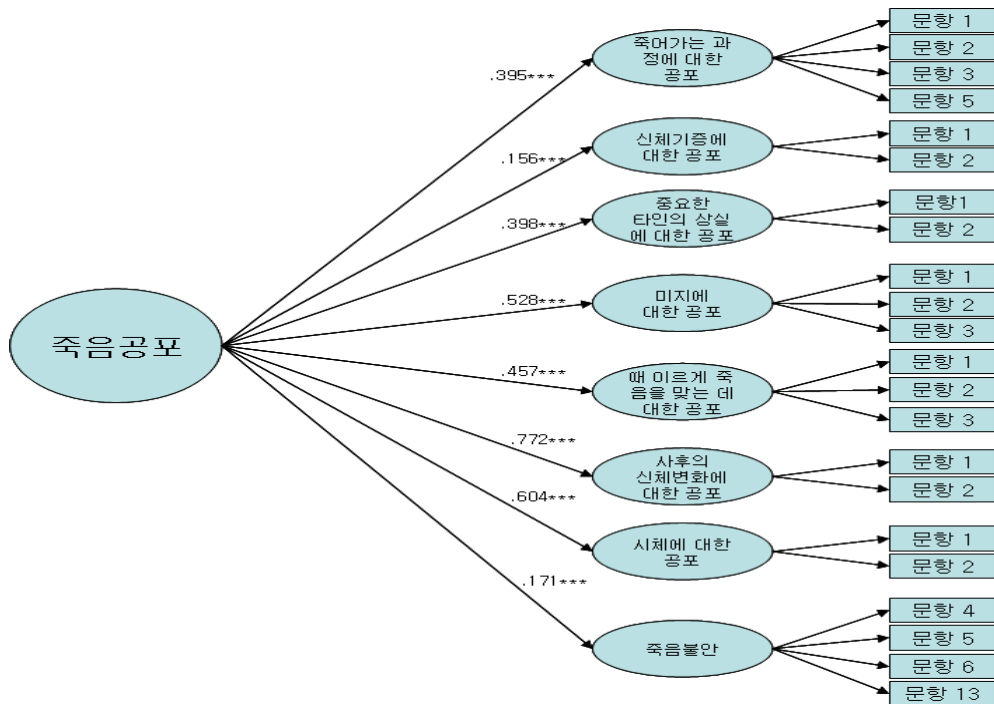


그림 2. 1요인 모형

개념으로 통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림 2에 제시된 바와같이, 죽음 공포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의 8개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와 생활만족에서의 차이

죽음공포

죽음불안을 죽음공포의 8번째 하위차원으로

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20대로, 그리고 성인후기 노인들의 집단을 60대, 70대, 80대로 구분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도 죽음공포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령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죽음공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4(20대, 60대, 70대, 80대)×2(남성, 여성)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고 표 3은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변량분석결과, 죽음공포의 8개 하위차원 중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차원과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 차원을 제외한 5개 차원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성별	N	죽음공포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죽음 불안
20대 (a)	남	171	2.553(.942)	3.137(1.062)	3.836(.727)	1.894(.779)	3.319(.914)	1.827(.824)	3.391(.463)	2.720(.746)
	여	153	2.831(.864)	3.238(1.082)	4.166(.663)	1.873(.857)	3.285(.981)	2.202(1.012)	4.166(.760)	3.061(.763)
	전체	324	2.684(.915)	3.185(1.071)	3.992(.716)	1.884(.815)	3.303(.945)	2.004(.935)	3.757(.945)	2.881(.772)
60대 (b)	남	53	2.827(.981)	3.466(1.212)	3.219(.830)	1.872(.716)	2.353(.943)	1.724(.717)	2.655(.909)	2.523(.526)
	여	70	3.604(.937)	3.350(1.370)	3.935(.775)	1.946(.892)	2.557(1.062)	2.300(1.171)	3.871(1.199)	2.940(.512)
	전체	123	3.269(1.028)	3.400(1.301)	3.627(.872)	1.915(.819)	2.469(1.014)	2.052(1.037)	3.347(1.237)	2.760(.556)
70대 (c)	남	78	3.330(.994)	3.752(1.371)	3.443(.953)	1.802(.769)	2.409(1.034)	1.792(1.045)	2.666(1.187)	2.710(.587)
	여	80	3.785(.933)	3.962(1.192)	3.900(.725)	2.111(.842)	2.406(1.039)	2.030(1.109)	3.584(1.150)	2.888(.532)
	전체	158	3.561(.987)	3.859(1.283)	3.675(.873)	1.958(.819)	2.408(1.034)	1.912(1.081)	3.130(1.252)	2.800(.565)
80대 (d)	남	16	3.443(.902)	3.981(1.267)	3.570(.704)	1.620(.591)	2.295(1.128)	1.243(.473)	2.420(1.327)	2.614(.518)
	여	31	3.792(1.016)	4.317(.898)	3.665(.687)	1.909(.921)	2.163(.966)	1.980(1.200)	3.555(1.125)	2.768(.552)
	전체	47	3.673(.983)	4.202(1.037)	3.632(.686)	1.811(.829)	2.208(1.013)	1.729(1.066)	3.169(1.302)	2.715(.540)
전 체	남	318	2.834(1.017)	3.385(1.210)	3.623(.837)	1.854(.758)	2.883(1.066)	1.772(.861)	3.042(1.089)	2.679(.667)
	여	334	3.311(1.011)	3.535(1.217)	4.008(.720)	1.949(.868)	2.818(1.099)	2.161(1.088)	3.908(1.028)	2.967(.651)
	전체	652	3.078(1.040)	3.462(1.215)	3.820(.802)	1.903(.817)	2.850(1.083)	1.971(1.002)	3.485(1.143)	2.827(.674)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에 대한 변량분석

종속변인	연령 <i>df</i> =3	성별 <i>df</i> =1	연령×성별 <i>df</i> =3	<i>MSE</i> <i>df</i> =644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Tukey 사후검증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37.703***	23.858***	2.128	.875	a<b<c, d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	16.859***	1.246	.602	1.369	a, b<c, d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13.381***	27.077***	2.610	.571	a>b, c, d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686	3.848*	1.657	.666	-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45.155***	.007	.517	.975	a>b, c, d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2.348	23.217***	1.112	.964	-
시체에 대한 공포	21.027***	96.367***	1.574	1.025	a>b, c, d
죽음불안	3.312	7.175***	1.366	.432	-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F(3, 644)=37.703$, $p<.001$), 신체기증에 대한 공포($F(3, 644)=16.859$, $p<.001$),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F(3, 644)=13.381$, $p<.001$),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F(3, 644)=45.155$, $p<.001$) 및 시체에 대한 공포($F(3, 644)=21.027$, $p<.001$)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신체기증에 대한공포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를 제외한 6개의 차원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F(1, 644)=23.858$, $p<.001$),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F(1, 644)=27.077$, $p<.001$),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F(1, 644)=3.848$, $p<.05$),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F(1, 644)=23.217$, $p<.001$), 시체에 대한 공포($F(1, 644)=96.367$, $p<.001$), 그리고 죽음불안($F(1, 644)=7.175$, $p<.001$) 차원에서 성에 따라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8개의 죽음공포 차원 모두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죽음공포의 하위차원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는 60대, 70대, 그리고 80대가 20대 보다 더 크고 70대가 60대보다 더 컸으며,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는 70대와 80대가 20대와 60대 보다 더 컸다. 또한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및 시체에 대한 공포는 20대가 60대, 70대, 80대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8개 차원의 죽음공포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신체기증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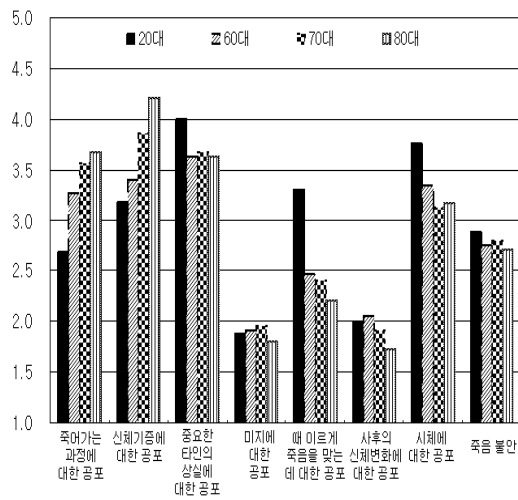


그림 3. 연령에 따른 8개 차원의 죽음 공포에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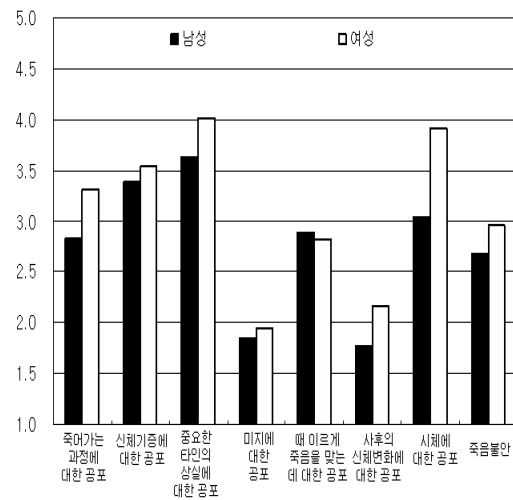


그림 4. 성별에 따른 8개 차원의 죽음공포에서의 차이

한 공포는 연령증가와 함께 분명한 증가패턴을 나타내었고 미지에 대한 공포와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에서는 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때 이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데 대한 공포나 시체에 대한 공포는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4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알 수 있다.

생활만족

생활만족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4(20대, 60대, 70대, 80대)×2

표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불안과 생활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성별	N	생활만족
20대	남	171	2.766(.668)
	여	153	2.763(.674)
	전체	324	2.764(.670)
60대	남	53	2.986(.853)
	여	70	3.042(.958)
	전체	123	3.018(.911)
70대	남	78	3.353(.758)
	여	80	3.098(.984)
	전체	158	3.224(.886)
80대	남	16	3.187(1.005)
	여	31	3.180(1.067)
	전체	47	3.183(1.035)
전체	남	318	2.968(.779)
	여	334	2.940(.871)
	전체	652	2.954(.827)

(남성, 여성)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생활만족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F(3, 644)=8.644$, $MSE=13.358$, $p<.001$), 성별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노인들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모든 연령의 노인들은 20대 대학생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여, 성인후기 노인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3. 죽음공포와 생활만족의 관계

죽음공포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두 변인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죽음공포의 하위차원들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같이, 20대 남자 대학생들은 죽음공포의 하위요인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181$, $p<.05$)와 생활만족 사이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0대 여자 대학생들은 죽음공포의 8개의 차원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289$, $p<.001$),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r=-.355$, $p<.001$),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r=-.288$, $p<.01$),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r=-.254$, $p<.01$), 그리고 죽음불안($r=-.190$, $p<.05$)과 생활만족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여자 대학생들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미지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이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의 경우에는, 70대 여성들만

표 5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죽음공포와 생활만족간의 상관

		생활만족							
		20대		60대		70대		8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죽음 공포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181(*)	-.289(***)	-.209	-.053	-.141	-.221(*)	.004	-.156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	-.019	-.096	.157	.138	.119	.113	.140	.135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015	.030	.196	-.014	.024	-.163	.383	.099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091	-.355(***)	-.022	.089	.025	-.050	-.019	-.122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121	-.228(**)	-.084	-.049	.047	-.257(*)	.193	-.065
	사후의 신체에 변화에 대한 공포	.001	-.254(**)	-.004	.121	-.010	-.034	-.349	.040
	시체에 대한 공포	-.051	-.067	.073	.198	-.114	-.013	-.151	-.076
	죽음불안	-.115	-.190(*)	.066	.024	-.169	-.097	-.029	.145

이 죽음공포의 하위차원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r=-.221, p<.05$)’ 및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r=-.257, p<.05$)’와 생활만족 사이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그리고 일찍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생활만족에 미치는 죽음공포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죽음공포의 8개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 여성들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beta=-.174, t=-1.918, p=.057$)와 미지에 대한 공포($\beta=-.266, t=-2.777, p<.01$) 차원이 생활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집단 즉 20대 남성과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남녀집단에서는 죽음공포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남성과 노인들의 생활만족은 죽음공포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0대의 남녀 대학생들(324명)과 60-80대 남녀 노인들(328명)을 대상으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죽음공포척도, 죽음불안척도 그리고 생활만족척도가 사

용되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죽음불안을 죽음공포의 8번째 하위차원으로 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60대, 70대 그리고 80대가 20대보다 그리고 70대가 60대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70대와 80대가 20대와 60대보다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젊은 이들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노인들보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및 시체에 대한 공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불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지닌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생활만족에서는 남녀간에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여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노인들이 20대 젊은이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들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였고, 20대 여성들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미지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이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였으며 70대 여성들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가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20대 여성들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미지에 대한 공포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나머지 연령집단 즉, 20대 남성과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남녀집단에서는 죽음공포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의 관계는 Fortner와 Neimeyer 및 Rybarczyk(2000)의 제안대로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죽음공포가 중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Fortner 등(2000)은 죽음과 관련한 불안과 공포, 걱정, 위협에 대한 조작적 측정치로 일부의 연구자들이 죽음불안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지만, 죽음불안은 죽음공포의 특정한 하위차원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를 감안할 때 죽음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조작적 측정치로 죽음불안보다는 죽음공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제안이 가능하다. 문제는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이 실제로 서로 상이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Templer(1970)의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가 죽음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죽음불안 척도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상대로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더 큰 공포를 나타내어 Johanson과 Barer(1997) 및 Tobin(1991, 1996)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70대와 80대는 20대와 60대보다 신체기증에 대해 더 큰 공포를 나타내어 젊은

수록 신체기증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신체 기증에 대한 공포는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패턴을 나타내었으나 현재의 젊은이들이 70, 80대가 되었을 때도 동일한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체기증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신체기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단연구를 통한 체계적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양상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대의 젊은이들은 노인들보다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데 대한 공포 및 시체에 대한 공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상실에 대한 공포, 시체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죽음공포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져 Neimeyer(1988)와 Kastenbaum(2000) 등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죽음공포가 클수록 더 적은 생활만족을 경험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측은 20대 젊은이들 특히 20대 여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결과였다. 20대 여성들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미지에 대한 공포, 때 이르게 죽음을 맞는 데 대한 공포, 사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공포 및 죽음불안과 생활만족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회귀분석 결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미지에 대한 공포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죽음공포는 20대 여성들의 생활만

죽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또한 20대 남성과 70대 여성들의 경우 죽음공포의 일부차원과 생활만족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기는 하였지만, 죽음공포는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20대 남성과 60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죽음공포는 생활만족과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은 죽음을 불가피한 삶의 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가올 죽음 때문에 삶에 불만족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노인들의 생활만족은 죽음공포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통제감, 자기존중감, 대처양식, 건강상태, 종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Oswald, 1997),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각 연령에서의 죽음공포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20대 여성들의 죽음공포와 생활만족간의 유의한 관련성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대가 60대 이상의 노인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Inglehart(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고(장휘숙, 2007; Diener & Suh, 1998; Westerhof, Dittman-Kohli & Thissen, 2001), 생활만족은 65세경에 절정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 감소한다는 연구(Mroczek &

Spiro III, 2005)도 있기 때문에 연령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다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죽음과 관련한 불안이나 공포, 위협 혹은 걱정 등에 대한 조작적 측정치로서 죽음불안보다는 죽음공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비록 20대 여성들에게 한정되기는 하지만 죽음공포에 의해 개인의 생활만족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현, 민경환 (2005).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 이흥표, 이흥석, 고효진, 김교현 (2005). 다차원적 죽음불안의 타당화 및 비교문화적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95-413.
- 장휘숙 (2000).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27-143.
- 장휘숙 (2007). 중년성인과 노인의 SOC 전략과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131-144.
- 전영기 (2000).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Benton, J. P., Christopher, A. N., & Walter, M.

- I. (2007). Death anxiety as a function of aging anxiety. *Death studies*, 31, 337-350.
- Cicirelli, V. G. (2006). Fear of death in mid-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1(2), 75-81.
- Conte, H. R., Weiner, M. B., & Plutchik, R. (1982). Measuring death anxiety: Conceptual psychometric and factor analytic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75-785.
- Depaola, S. J., Griffin, M., Young, J. R., & Neimeyer, R. A. (2003).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Death studies*, 27, 335-354.
- Diener, E., & Suh, E. (1998).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national analysi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7, 304-324.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eifel, H., & Nagy, V. T. (1981). Another look at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278-286.
-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 387-411.
- Fortner, B. V., Neimeyer, R. A., & Rybarczyk, B. (2000). Correlates of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comprehensive review. In A. Tomer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pp. 95-108). Philadelphia: Brunner-Routledge.
- Fry, P. S. (1990). A Factor Analytic investigation of home-bound elderly individuals' concerns about death and dying and their coping respons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737-748.
- Gesser, G., Wong, P. T. P., & Reker, G. T. (1987-1988).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 *Omega*, 2, 113-128.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ohanson, C. L., & Barer, B. M. (1997). *Life beyond 85 years: The aura of survivorship*. New York: Springer.
- Kastenbaum, R. J. (1998).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6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Kastenbaum, R. (2000). *The psychology of death* (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onetto, R., & Templer, D. I. (1986). *Death Anxiety*. Washington, DC: Hemisphere.

- Mroczek, D. K., & Spiro III, A. (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89-202.
- Neimeyer, R. A. (1994).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Neimeyer, R. A. (1988). Death Anxiety. In H. Wass, R. Berardo, & R. A. Neimeyer (Eds.), *Dying: Facing the facts* (2nd ed., pp. 97-136). Washington, DC: Hemisphere.
- Neimeyer, R. A., & Moore, M. K. (199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03-11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Neimeyer, R. A., & Van Brunt, D. (1995). Death anxiety. In H. Wass & R. A. Neimeyer (Eds.), *Dying: Facing the facts* (3rd ed., pp. 49-8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Neimeyer, R. A., Wittkowski, J., & Moser, R. P. (2004). Psychological research on death attitudes: An overview and evaluation. *Death studies*, 28, 309-340.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 1815-1831.
- Robinson, P. J., & Wood, K. (1984). Fear of death and physical illness: A personal construct approach. In F. R. Epting & R. A. Neimeyer (Eds.), *Personal meanings of death* (pp. 127-142). Washington, DC: Hemisphere.
- Russac, R. J., Gatliff, C., Reece, M., & Spottswood, D. (2007).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Death studies*, 31, 549-561.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165-177.
- Tobin, S. S. (1991). *Personhood in advanced old age: Implications for Practic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Tobin, S. S. (1996). A non-normative old age contrast: Elderly parents caring for offspring with mental retardation. In V. L. Bengtson (Ed.), *Adulthood and aging: Research on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pp. 124-142).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3-2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Viney, L. L. (1984). Concerns about death among severely ill people. In F. R. Epting & R. A. Neimeyer (Eds.), *Personal meanings of death* (pp. 143-158). Washington, DC: Hemisphere.
- Wass, H., Berardo, F., & Neimeyer, R. A. (1988). *Dying: Facing the facts* (2nd ed.). Washington, DC: Hemisphere.
- Westerhof, G. J., Dittmann-Kohli, F., & Thissen, T. (2001). Beyond life satisfacti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o judgments about the quality of life. *Social*

- Indicators Res.* 56: 179-203.
- Wong, P. T. P., Reker, G. T., & Gesser, T.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1 차원고접수 : 2007. 10. 01.
수정 원고접수 : 2007. 11. 09.
최종 게재결정 : 2007. 11. 14.

Relationships among Fear of Death,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Jang, Hwee Sook

Choi, Young Im

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eath fear (consisting of 7 deminsions) was differentiated from death anxiety,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death fear,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by age and gender,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variables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vealed it was reasonable to include death anxiety as the 8th dimension in death fear. Also, ANOVA revealed that individuals in the sixties, seventies, and eighties had more fear of the dying process than individuals in the twenties, and that individuals in the seventies and eighties had more fear of body donation than individuals in the twenties and sixties. As expected, the college students tended to have more death fear than the elderly and women tended to have more death fear than men. Although the elderly had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an college students, death fear did no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except among college women.

Key words : death fear, death anxiety, life satisfaction